

재해 지역 소식

2013년 12월

바다에서 본 오기노 하마

자그마한 한 걸음은 굴 양식의 지원으로부터

센다이

일본 기독교단 동북 교구 재해자 지원 센터 • 엠마오 이시노마키

엠마오 이시노 마키에서는 가설 주택의 지원과 지역 어린이들의 교육 지원이외에 어업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봄부터 오시카 반도의 서부에 위치하는 오기노 하마에서 굴과 미역의 양식을 도우며, 바닷가에서의 행사를 돕고 있습니다.

오기노 하마에서는 현재, 10 채(지진전에는 10 수 채였다.)의 주민들이 굴 양식을 중심으로 한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바닷가 가까이에 대규모의 세울 수 없었기 때문에 젊은 어업 종사자들은 먼곳에서 바닷가까지 매일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재해전에는 친척과 이웃 사람들과 하고 있었던 일이지만, 바닷가를 떠난 사람도 있어서 심각한 일손 부족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을 깎아서 고지대에 주택지를 만들 계획에 있지만, 아직 공사도 시작되고 있지 않은 상태라서, 바닷가에서의 새로운 생활은 언제 시작될지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심각한 상태에 있어도 쉬지않고 전진해 가는 어업 종사자들은 언제나 밝은 표정으로 우리들을 맞이해 줍니다. 서툰 우리들이 도울 수 있는 것엔 한계가 있어 어업 재개의 지원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재해지역에서는 눈에 띄게 복구되고 있는 장소도 늘어 나고 있지만, 아직도 복구의 형태조차 보이지 않는 장소도 많이 있습니다. 작은 일뿐이 할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지금부터 오기노 하마, 오시카 반도의 복귀를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 가고 싶습니다.

(엠마오 이시노마키·스텝·나카노 카나)



굴의 종자 부착용으로 가리비의 껍질에 구멍을 뚫어 로프로 이었다.



어업에 사용하는 부낭에 상호를 쓰는것을 돕기도 하고

국내 모금 달성액
(2013년 10월 21일 현재)

615,152,025 엔

일본기독교단 동일본대지진구조모금

목표액 10억엔(국내만)

기간 2011년 7월 1일~2015년 3월 31일

송금처 유우초은행

구좌번호 0010-6-639331

가입자명

일본기독교단동일본대지진구조모금